

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

박희석

서울연구원
서울경제분석센터장

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

2013. 6. 24 제144호

박희석 /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

< 목 차 >

요약

- 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- II. 서울의 2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- III. 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
- IV. 요약 및 시사점

부록 : 2013년 2/4분기 주요 조사결과

요 약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 회복세는 주춤, 고용은 정체

서울의 「산업생산」은 2013년 2월 -14.5%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회복세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최근 5개월간 평균 -7.1%를 유지하고 있다. 내수로 대표되는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 또한 2013년 1월 -9.3%의 최저점 이후 5개월 연속 평균 -0.9%의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. 「총 취업자 수」는 2013년 1월 1.7% 성장으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3년 4월 0.2%로 2개월 연속 동일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.4% 감소한 864명으로 하락폭이 증가하고 있다.

서울시민의 소비자 체감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소폭 상승

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2013년 2/4분기 90.2로 4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.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와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,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각각 87.8, 64.8, 91.8로 전(前) 분기 대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. 그러나 1년 후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와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,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각각 104.5, 99.7, 97.7을 기록하여 전 분기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. 그 외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6.6p 상승한 106.3으로 최근 4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해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.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95.5로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145.2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나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은 값을 기록하였다.

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2%대의 성장이 전망

2013년 서울의 하반기 「경제성장률」은 상반기 대비 0.5%p 증가한 2.4%로 전망되며 2013년 상반기 이후 점차 회복되어 완만한 성장이 예상된다. 하반기 「민간소비지출」은 2.0%로 상반기 대비 0.6%p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아 2%대에 머무르며 연간 1.7%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. 하반기 「물가상승률」은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안정세가 예상되며 상반기 대비 0.6%p 오른 2.4%로 전망된다. 하반기 「실업률」은 상반기 대비 0.2%p 감소한 3.8%로 최근 3년간의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.

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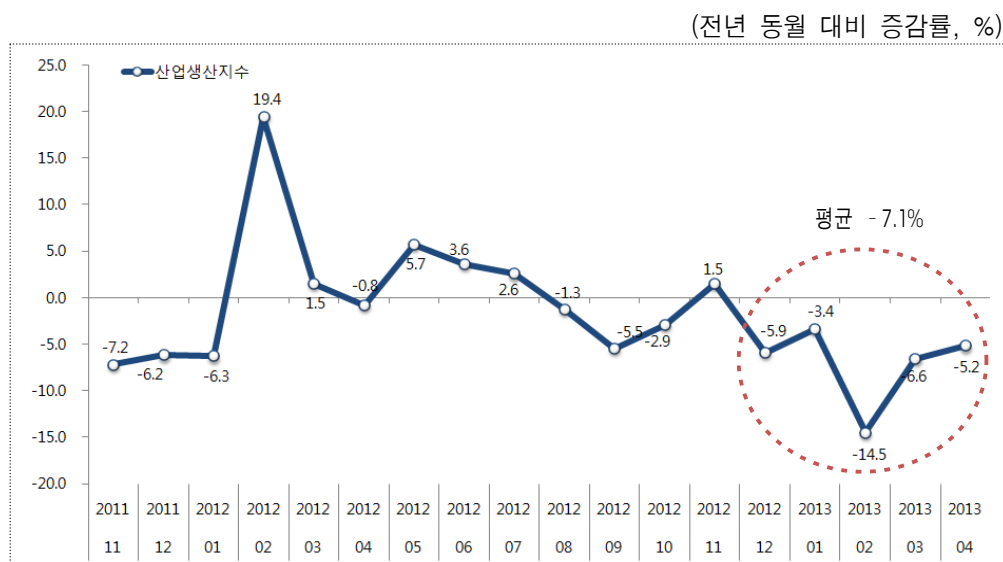
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통 판로를 넓히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. 또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서울에 맞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.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청년층 실업 대책으로 청년층 일자리 발굴 사업 등을 통한 청년층 고용의 안정화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.

I.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

최근 서울의 산업생산과 소비는 회복세 주춤, 고용은 보합세

□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3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성장

- 최근 서울의 「산업생산지수」는 5개월 연속으로 하락세
 - 「산업생산지수」는 2013년 2월 -14.5%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나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으로 최근 5개월간 평균 -7.1%를 유지
 - 서울의 마이너스 산업생산지수는 자본재 생산요인에 기인한 것으로 2013년 4월 서울의 자본재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-13.6%를 기록
 - 그 외 중간재와 소비재 생산은 2013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.6%, 2.8% 감소
- ※ 「산업생산지수」란 모든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생산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표로 지역경제 전체의 경기동향까지도 파악이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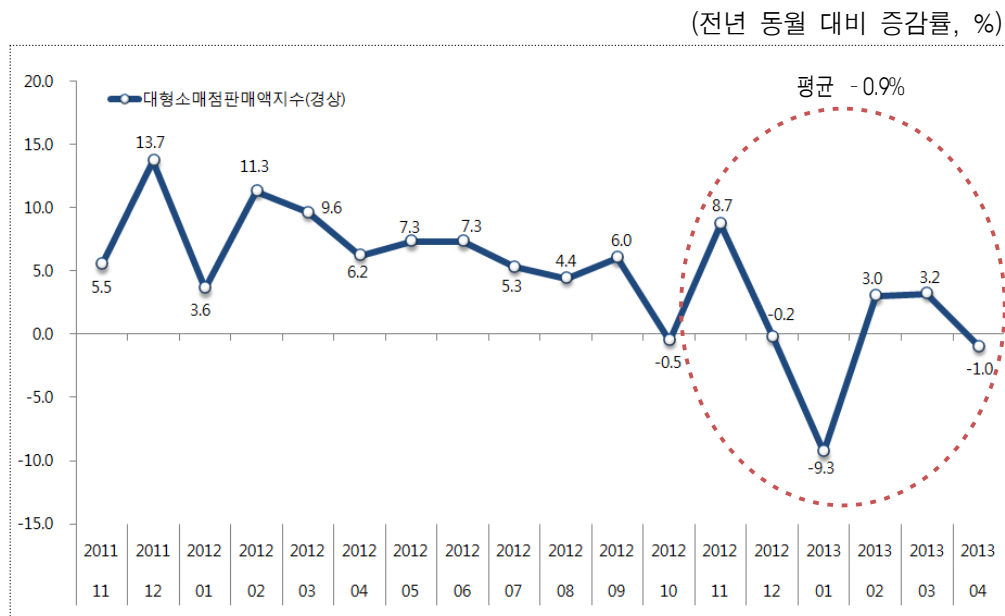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통계청

[그림 1] 서울의 산업생산

□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최근 5개월간 평균 0.9%가 감소

- 내수로 대표되는 서울의 「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」는 2013년 4월에 전년 동월 대비 1.0% 하락
- 부문별로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.4%, 대형마트는 1.6% 감소
- 2013년 1월 -9.3%로 최저점을 기록한 후 2월엔 대형마트, 3월엔 백화점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으나 2013년 4월 다시 감소하여 -1.0% 기록
- 서울의 내수 성장은 2012년 3분기 이후 불안정한 성장폭을 그리며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내수 정체가 우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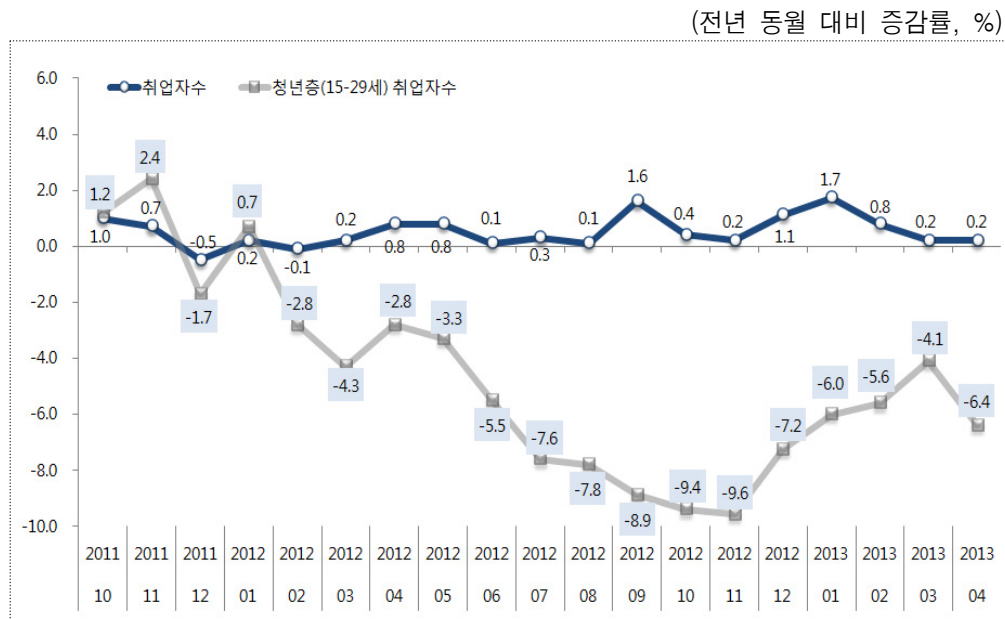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[그림 2]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

□ 서울의 전년 동월 대비 「총 취업자 수」 증감률은 보합세

- 2013년 4월 서울의 「총 취업자 수」는 전년 동월 대비 0.2%가 증가한 5,073명

- 『총 취업자 수』 증가율은 2012년 12월과 2013년 1월 대기업 채용시기 등 계절성의 영향으로 1%대 후반까지 올랐다가 최근 다시 정체
- 2013년 4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 증가는 전년 동월 대비 6.4%가 감소한 864명
- 2012년 말부터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었으나 2013년 4월 감소폭이 다시 증가
- 이는 청년 취업 활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청년 취업시장은 불안정함을 시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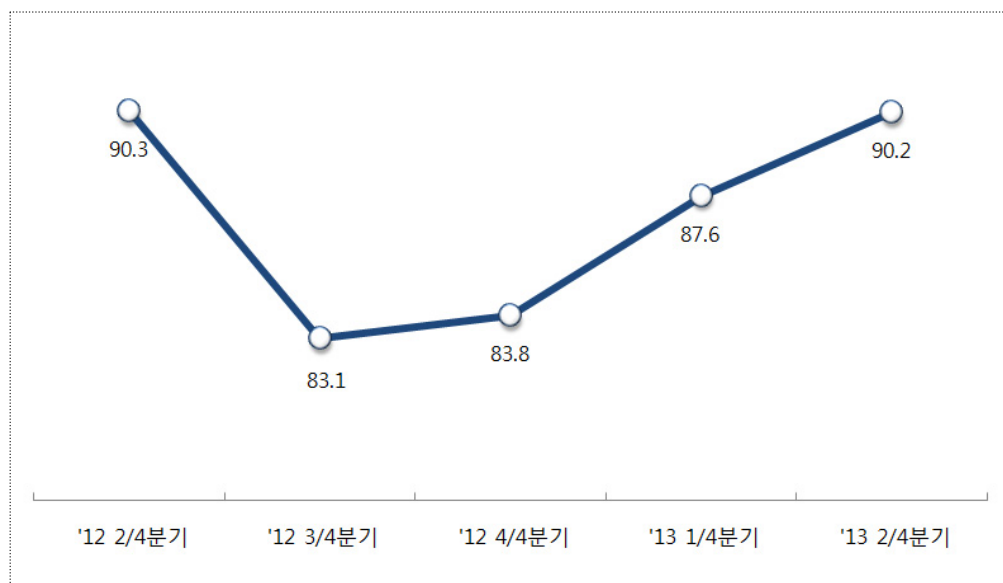
자료 : 통계청

[그림 3] 서울의 취업자 수

II. 서울의 2/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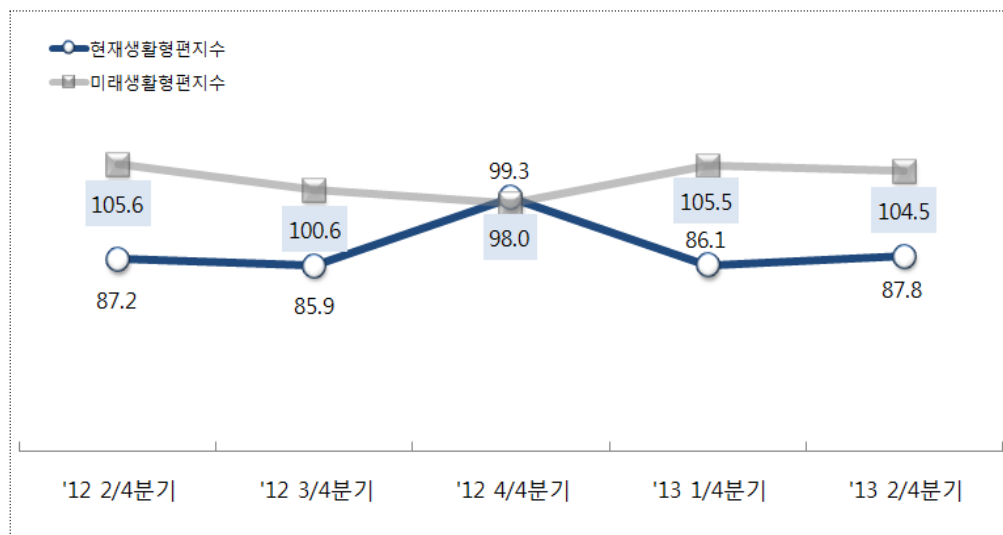
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

-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4분기에 걸쳐 연속 상승
 - 2013년 2/4분기 서울의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90.2로 전(前) 분기보다 2.6p 증가
 - 2012년 3/4분기부터 상승세로 전환한 「소비자태도지수」는 1년 만에 90을 상회하는 값으로 회복
 - 물가 상승세 진정,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으로 소비자들의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반영된 것으로 해석
 - 그러나 환율 평가 절상의 지속과 저성장 기조 우려 등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향후 소비심리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



[그림 4]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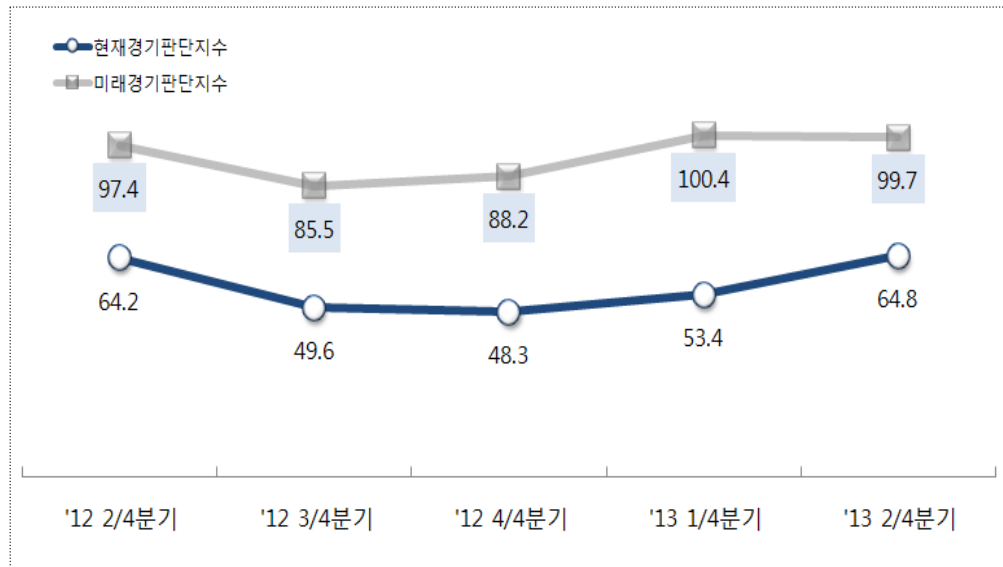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현재 생활형편은 부정적이나, 향후에는 개선될 것으로 기대
 - 2013년 2/4분기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7p 상승한 87.8,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1.0p 하락한 104.5를 기록
 - 「현재생활형편지수」는 2012년 4/4분기 기준치(100)에 가까운 값으로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하여 현재 생활형편에 대한 기대감이 전 분기와 마찬가지로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 - 「미래생활형편지수」는 전 분기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(100)를 상회하고 있어 향후 생활형편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



[그림 5] 서울의 생활형편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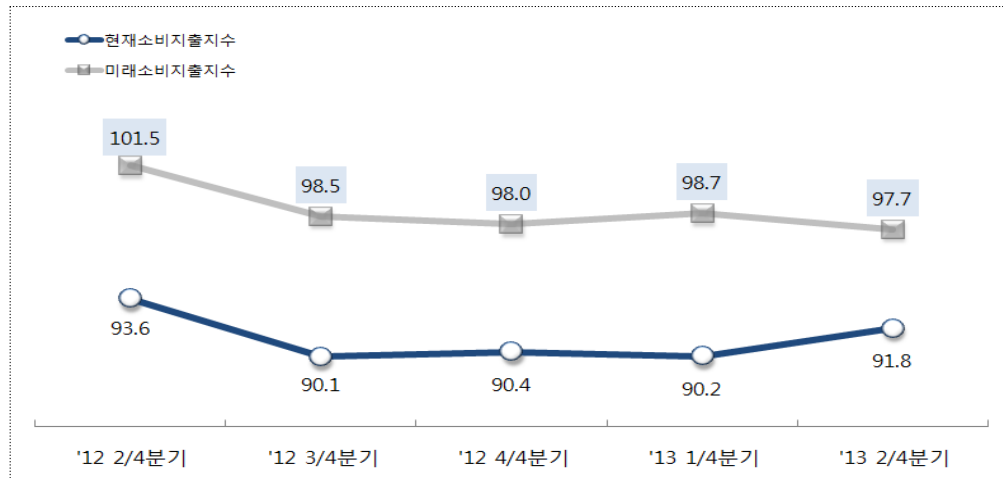
- 서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기 판단은 불투명
 - 2013년 2/4분기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1.4p 상승한 64.8을 기록
 - 「현재경기판단지수」는 64.8로 전년 동기 수준으로 회복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(100)를 크게 하회하고 있어 현재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

- 2013년 2/4분기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99.7로 전 분기 대비 0.7p 하락
- 「미래경기판단지수」는 전 분기에 기준치(100)를 상회하였으나 다시 하락하여 1년 후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심리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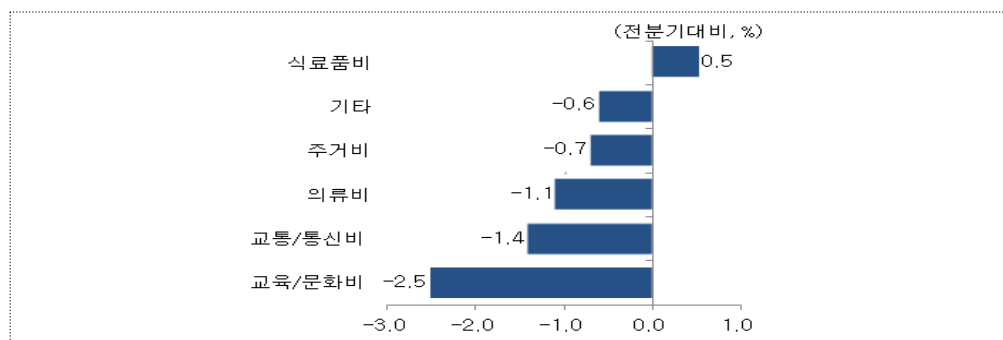
[그림 6] 서울의 경기판단지수

- 서울의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는 3분기 연속 횡보세를 유지
- 2013년 2/4분기 「현재소비지출지수」는 91.8로 전 분기 대비 1.6p 상승하였으나 기준치(100) 이하로 여전히 소비심리는 위축
- 현재 서울의 가계 소비지출에 대한 기대감은 4분기 평균 90으로 횡보세
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0p 하락한 97.7을 기록하여 여전히 기준치(100)를 하회
-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또한 3분기 연속 98대에서 횡보하고 있어 1년 후 소비지출에 대한 긍정적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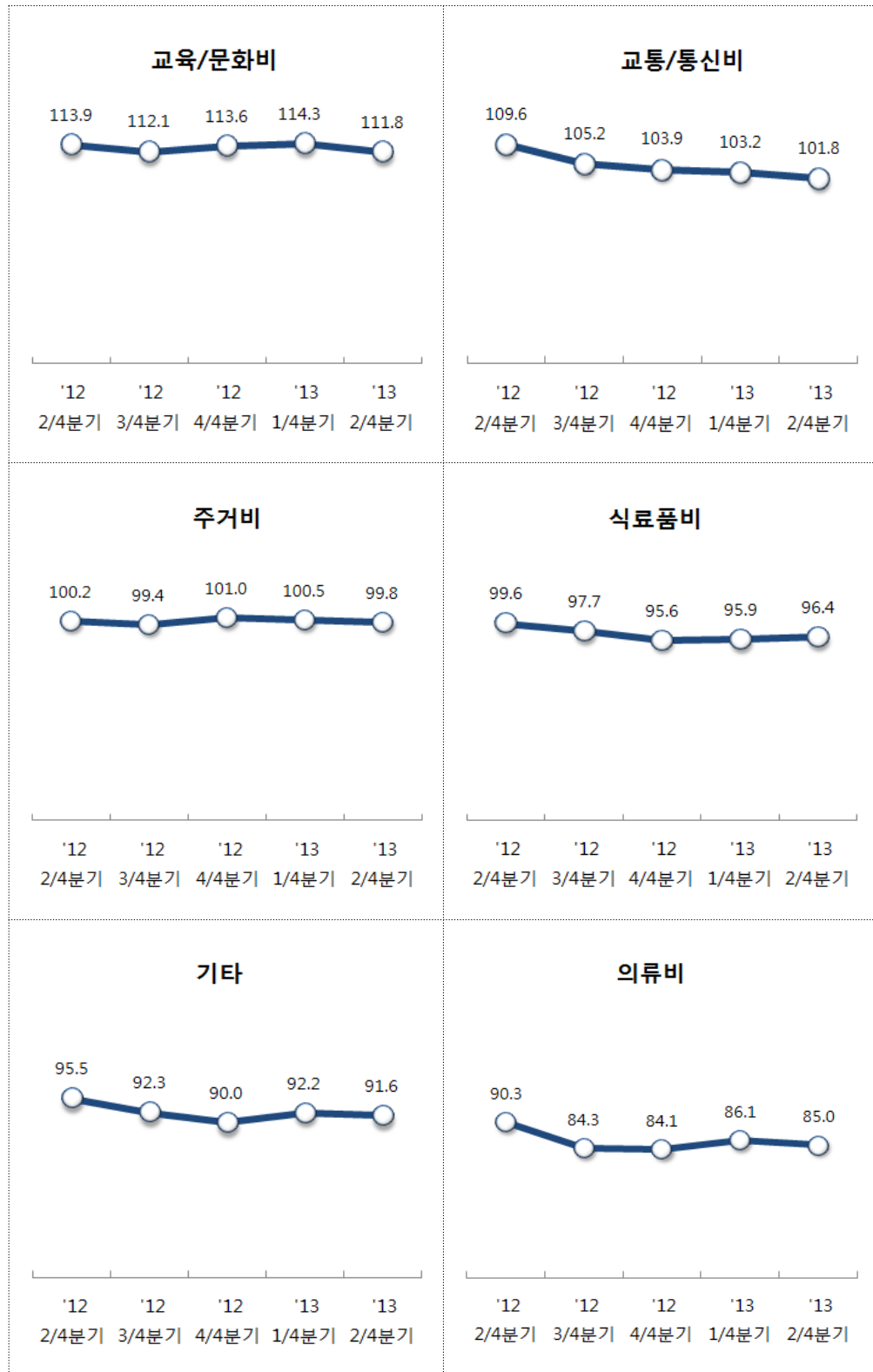


[그림 7-1] 서울의 소비지출지수

- 품목별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 조사 결과 '교육/문화비', '교통/통신비', '주거비' 등의 순으로 지출이 유지될 전망
- '교육/문화비'는 전 분기 대비 2.5p 감소한 111.8, '교통/통신비'는 전 분기 대비 1.4p 감소한 101.8을 기록하며 기준치(100)를 상회
 - '주거비'는 전 분기 대비 0.7p 감소한 99.8, '식료품비'는 전 분기 대비 0.5p 상승한 96.4, '기타' 항목은 전 분기 대비 0.6p 감소한 91.6, '의류비'는 전 분기 대비 1.1p 감소한 85.0을 기록하며 전 분기보다 1년 후 소비지출을 더 줄이겠다고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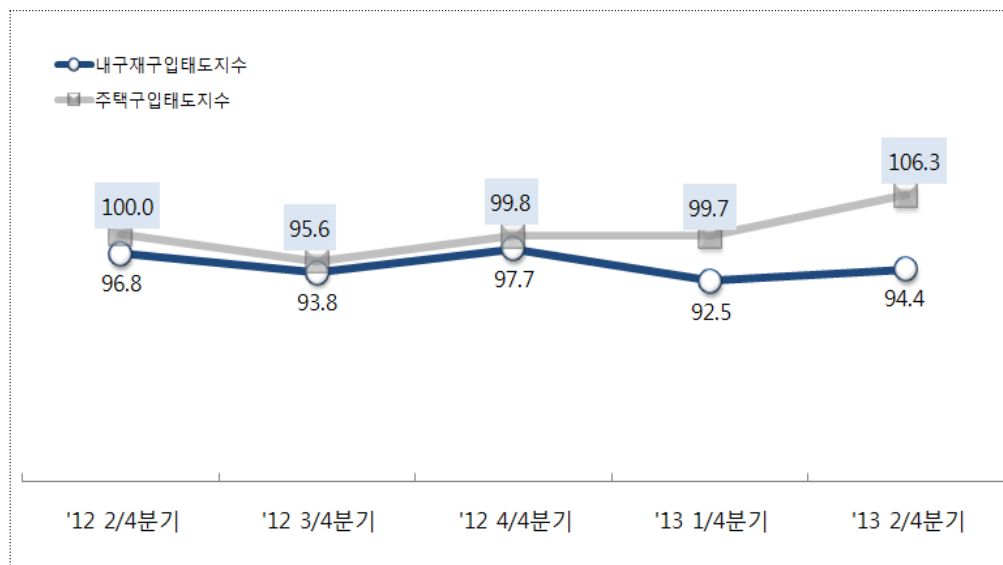


[그림 7-2] 서울의 품목별 미래소비지출지수의 전 분기 대비 증감률



[그림 7-3]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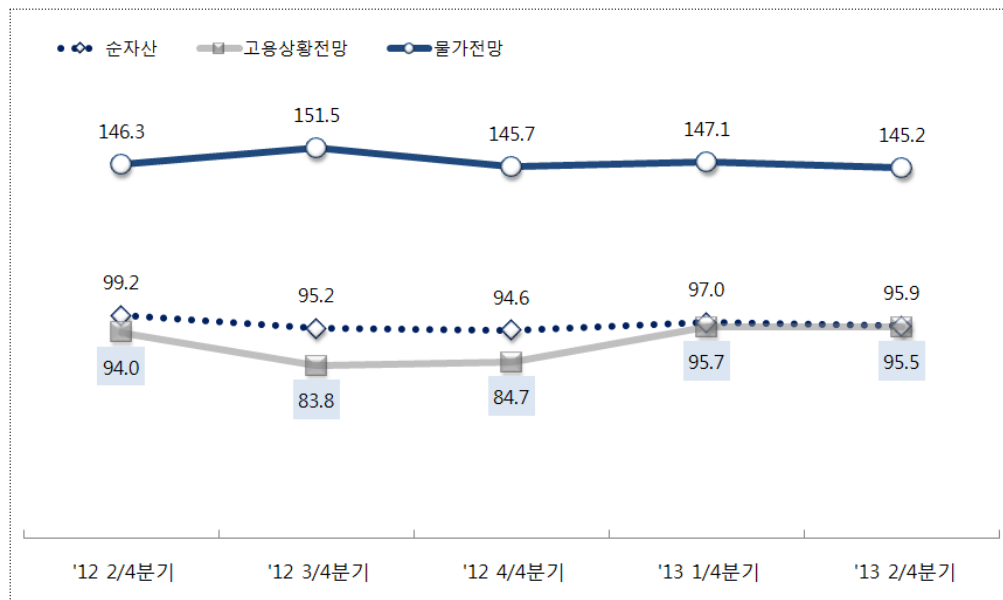
- 서울시민의 내구재구입태도와 주택구입의사는 모두 상승세로 전환
 - 2013년 2/4분기 「내구재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9p 상승한 94.4
 - 자동차, 가구 등 내구재 구입에 대한 소비심리는 지난 분기보다는 소폭 개선되었으나 2011년 1/4분기 이후 기준치(100)를 하회하며 위축
 - 「주택구입태도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6.6p 상승한 106.3으로 최근 4년 이내 최고치를 기록
 - 이는 2009년 2/4분기 이후 가장 높은 값으로 새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한 서울시민의 기대심리가 최고조에 도달한 것으로 조사



[그림 8] 서울의 내구재 및 주택 구입태도지수

- 서울의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물가 불안심리는 완화
 - 2013년 2/4분기 「순자산지수」는 전 분기 대비 1.1p 하락한 95.9로 2년간 기준치(100) 이하

- 2013년 2/4분기 「물가전망지수」는 전 분기보다 1.9p 하락한 145.2로 최근 3년 이내 가장 낮은 값을 기록
 - 저성장 기조에 따른 소비자 물가지수는 낮은 수준이나 생필품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물가 등 서민 체감 물가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
- 2013년 2/4분기 「고용상황전망지수」는 95.5로 전 분기 대비 0.2p 하락
 - 2013년 상반기에 고용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고용상황은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조사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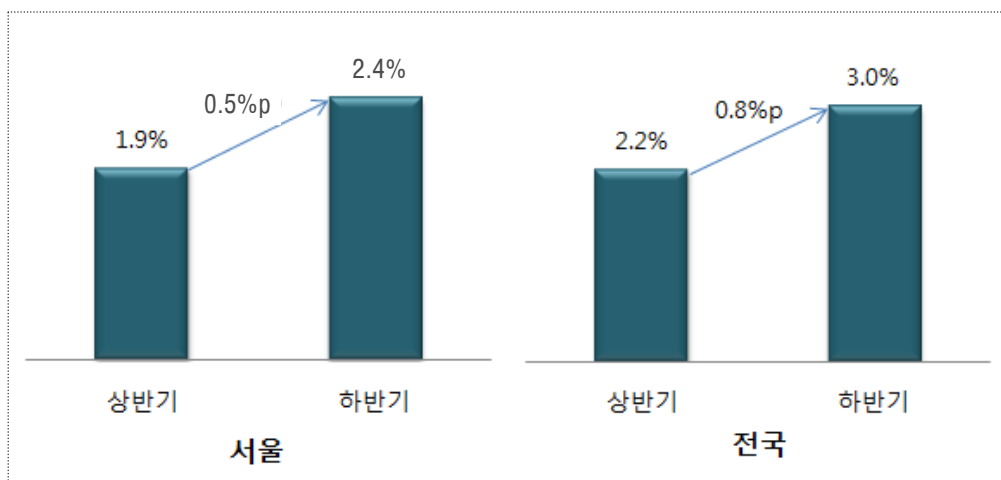
[그림 9] 서울의 순자산, 고용전망, 물가예상지수

Ⅲ. 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 전망

2013년 하반기 서울경제는 저성장 기조로 2%대의 성장이 예상

□ 서울의 하반기 경제성장률은 2.4%로 전망

- 하반기 서울의 경제성장률은 주택시장 개선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저성장 기조로서 상반기 대비 0.5%p 높은 2.4%의 성장이 전망
- 다만 유럽의 경기침체 지속 가능성, 미국의 양적 완화 출구전략에 따른 재정위기 불안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으로 당초보다 성장세가 둔화
- 연간 서울의 성장률은 2.2%로 전국의 성장률 2.6%보다 0.4%p 낮은 성장이 예상
- 최근 3년간 서울은 전국의 약 53~74% 성장을 보이고 있어 이 추세에 의하면 서울은 연간 1.7~2.3% 사이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해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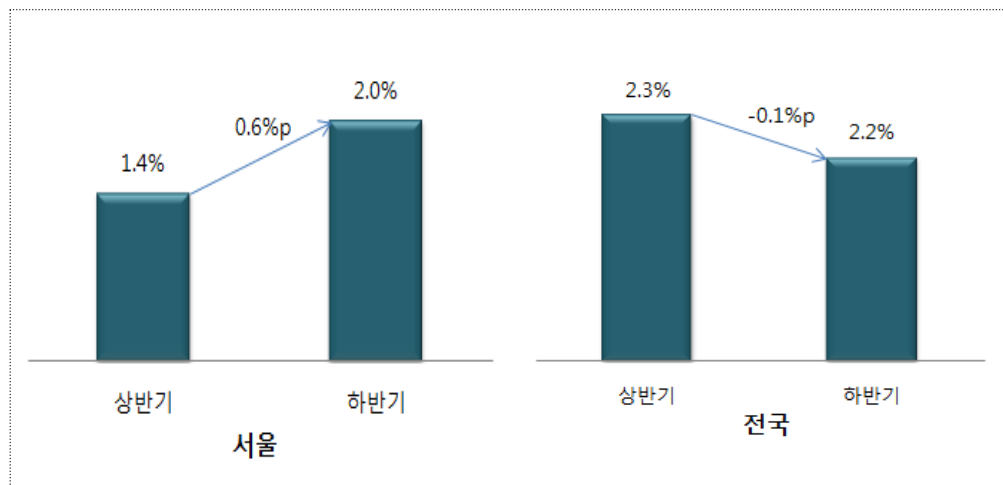
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4.), KDI(2013.5.23.), OECD(2013.5.29.) 전망치 평균

[그림 10]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

□ 서울의 하반기 소비는 2.0%로 전망

-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최근 5개월간 -0.9% 성장을 기록하고 있어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개선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 대비 0.6%p 상승한 2.0%로 예상
- 서울연구원이 조사한 2013년 2/4분기 「미래소비지출지수」도 97.7로, 하반기 소비심리의 가시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
- 연간 서울의 소비는 전국 대비 0.6%p 낮은 1.7%로 전망
- 전국 대비 경기 변동에 민감한 서울의 내수 부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·하반기 모두 전국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상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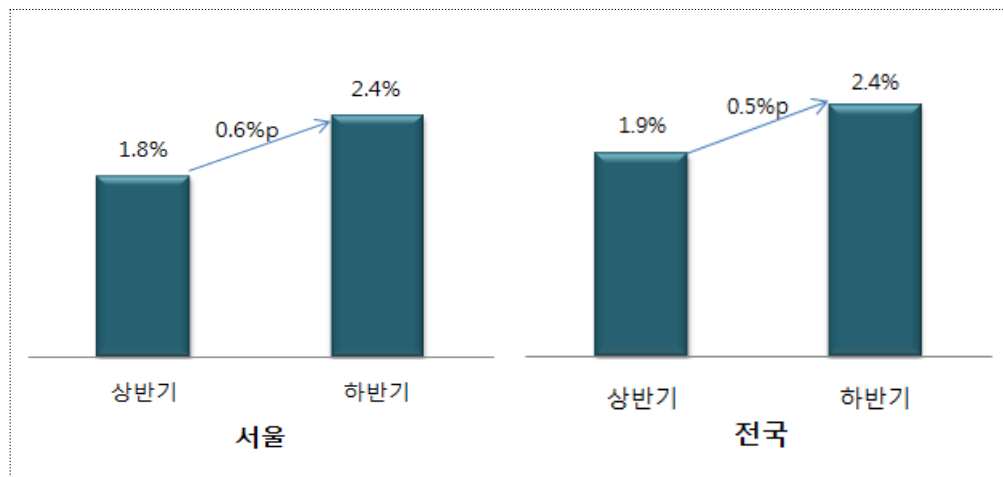
주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4.), KDI(2013.5.23.), OECD(2013.5.29.) 전망치 평균

[그림 11]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소비 전망

□ 서울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2.4%로 전망

- 서울의 하반기 물가상승률은 상반기 대비 0.6%p 높은 2.4%로 전국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

- 서울의 상반기 물가지수는 1%대 후반으로 안정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률 상승에 따른 추세 반영으로 소폭 상승
- 연간 서울의 물가상승률은 2.1%로 전국 물가상승률 2.2%보다 0.1%p 낮을 전망
- 환율 하락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과 저성장 기조에 따른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농산물 가격과 공공요금 인상의 요인으로 다소 상승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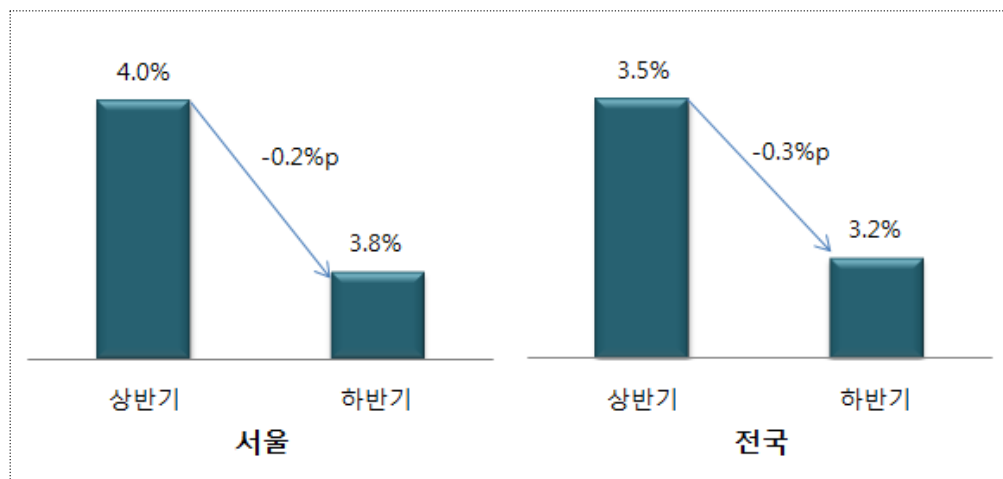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4.), KDI(2013.5.23.), OECD(2013.5.29.) 전망치 평균

[그림 12]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물가상승률 전망

□ 서울의 하반기 실업률은 3.8%로 전망

- 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고용개선 확대에 따라 상반기 대비 0.2%p 하락한 3.8%로 예상
- 청년층과 고령층 일자리 정책의 지속적 운영 등으로 최근 3년간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전국보다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

- 연간 서울의 실업률은 3.9%로 전국의 실업률 3.4%보다 0.5%p 높을 것으로 예상
- 상·하반기 서울의 실업률은 제한적이나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로 소폭 하락이 전망



주 : 서울은 서울연구원에서 전망, 전국은 한국은행(2013.4.), KDI(2013.5.23.), OECD(2013.5.29.) 전망치 평균

[그림 13] 2013년 서울 및 전국의 실업률 전망

Ⅳ. 요약 및 시사점

서울의 2/4분기 체감경기는 소폭 개선, 하반기 경제성장은 2.4%로 전망

- 서울시민들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는 상승세이나 기대감은 미흡
 - 서울시민의 전반적인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『소비자태도지수』는 2013년 2/4분기 90.2를 기록
 - 2013년 2/4분기 『현재생활형편지수』는 87.8, 『현재경기판단지수』는 64.8을 기록하여 전 분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정적임을 시사
 - 물가 안정화,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상승 등으로 체감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1년 후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미래지수가 기준치(100)를 하회하고 있어 경기 회복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
- 서울의 하반기 경제는 전국보다 낮은 2%대의 성장이 전망
 - 하반기 서울경제는 주택시장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로 완만한 상승세가 예상되나 대외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초보다 낮은 2.4%로 전망
 - 2013년 하반기 서울시민의 소비는 내수 부진의 지속으로 인해 2.0% 성장이 예상되며, 서울의 물가는 1% 후반대의 안정된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률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상반기 대비 0.6%p 높은 2.4%로 예상
 - 서울의 고용상황은 고령층(60세 이상) 취업자 수의 꾸준한 증가로 인한 3년간의 실업률 하락 추세에 따라 상반기 대비 0.2%p 하락한 3.8%로 예상

소상공인 지원 등 경기 활성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
□ 청년층 일자리 발굴 등의 사업 강화로 고용을 안정화

- 서울의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청년층 중심의 사업 강화가 필요
- 일자리 창출은 단기적 성과보다는 지속가능한 정규직 일자리 확대 및 청년층 신용 회복을 지원하여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성에 기여
- 최근 5월에 발표한 '청년과 함께하는 2013년 청년일자리 종합계획' 등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

□ 영세상인과 중소기업 육성 및 보호로 서민경제의 내실화에 기여

- 서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민경제의 기초가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보호가 필요
- 공동전시판매장이나 인터넷·스마트폰을 이용한 다양한 유통 판로 확충으로 서울시민들이 중소기업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
- 중소슈퍼마켓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'슈퍼닥터'와 같은 제도를 통해 서민 자영업의 자생력을 강화

□ 협동조합 등 새로운 경제 커뮤니티의 지원을 통해 저성장 기조를 회복하고 내수시장을 활성화

- 서울형 협동조합과 같은 소상공인의 영업 기반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
- 협동조합이 지역주민들의 권익·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에게 사회

적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제적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장려

- 협동조합이 단기적 정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·발전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

박희석 | 서울연구원 서울경제분석센터장

02-2149-1227

hspark@si.re.kr

부록 : 2013년 2/4분기 주요 조사결과

<표 1>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

	소비자 태도	생활형편		경기판단		구입태도	
		현재 생활형편	미래 생활형편	현재 경기판단	미래 경기판단	내구재 구입태도	주택 구입태도
2012년 2/4분기	90.3	87.2	105.6	64.2	97.4	96.8	100.0
2012년 3/4분기	83.1	85.9	100.6	49.6	85.5	93.8	95.6
2012년 4/4분기	83.8	99.3	98.0	48.3	88.2	97.7	99.8
2013년 1/4분기	87.6	86.1	105.5	53.4	100.4	92.5	99.7
2013년 2/4분기	90.2	87.8	104.5	64.8	99.7	94.4	106.3

<표 2>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

	소비지출		순자산	고용상황	물가에상
	현재 소비지출	미래 소비지출			
2012년 2/4분기	93.6	101.5	99.2	94.0	146.3
2012년 3/4분기	90.1	98.5	95.2	83.8	151.5
2012년 4/4분기	90.4	98.0	94.6	84.7	145.7
2013년 1/4분기	90.2	98.7	97.0	95.7	147.1
2013년 2/4분기	91.8	97.7	95.9	95.5	145.2

본 조사는 2008년 3/4분기 이후 서울지역 표본 1,000가구를 대상으로 매분기 조사한 결과로, 표본의 신뢰수준은 95%, 오차는 $\pm 3.1\%$ 임(2013년 2/4분기 조사 시점은 2013년 5월 중순).